

정후식칼럼

‘광주 정신’의 발화점, 학생독립운동



논설실장·이사

일제 강점기 ‘광주학생운동’에서 촉발된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이자 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항쟁의 불길과 파급 효과가 비단 ‘광주’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9년 11월 3일 민족 차별과 식민지 노예 교육에 항거하는 광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투쟁은 이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남으로 목포와 나주에서, 북으로 함흥·회령까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만 4000여 명이 참여했으니 그야말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었다.

북간도, 연해주, 일본 도쿄 등 해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펼쳐졌다. 멕시코와 쿠바 등지의 한인들은 지지 집회를 열고 에네켄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을 후원금으로 보냈다. 김재기 전남대 교수가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은 “광주학생운동이 접체된 독립운동을 진작시키고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독립운동은 90년이 다 되도록 그 위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일제가 식민 통치를 위해 그 진상(真相)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왜곡하며 조작한 것이 근본 원인이 됐을 것이다. 나아가 광복 이후에도 부단한 연구와 참가자 증언 채록 등 학술 조사 및 규명 활동

거국적 항일투쟁 굴곡진 역사

그러다 보니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일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불씨를 지켰던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그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려는 움직임은 미약하기만 하다.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기념식과 기념사업은 대중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국제 세미나는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 이날 100주년을 앞둔 과제로 ‘광주’라는 지역성의 극복을 통한 전국화, 해외 확산 상황 등에 대한 연구 강화, 참가자

들의 독립 유공자 서훈 확대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화 이전에 지역화 작업부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광주에서조차 그날의 합성과 승격을 느끼고 시위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유적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참여 학교에 설치된 기념탑과 역사관,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념관이 사실상 전무다. 9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의 현장이 무관심과 휴대 속에 대부분 흔적도 없이 유실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초의 한일 학생 충돌 지점인 수기동 우편소와 집단 충돌이 벌어진 광주역 옛 터(현 동부소방서) 그리고 도쿄(현 대인시장 동문 입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밀결사와 동맹휴학 등 조직적 투쟁의 모체였던 독서회 및 소녀회가 모임을 가진 장재성 빵집도 사라졌다. 그 빵집 건물(현 금남로 공원)에는 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든 학생소비조합과 김기권 문방구도 있었다고 한다. 장재성·왕재일·박인생 등이 최초의 학생 비밀결사 조직인 성진회(靑進會)를 결성한 최규창의 하숙집(불로동)이 또 서희회중앙분부가 탄생한 김기권의 집(양림동)도 마찬가지다.

특히 3·1운동은 물론 광주학생운동 당시 청년 운동가들의 회합 장소이자 학생 투쟁지도본부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흥학관(興學館)은 신간회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운동 단체의 본거지이자 민족 교육의 요람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들 역사적 현장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조사를 바탕으로 표지석을 설치하거나 사적지로 지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공간에 대한 기억과 장소성을 되살려 시민과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유적이 광주 구도심

주변에 모여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독립운동 테마거리’ 조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419·518·228번 버스처럼 이들 유적들을 경유하는 1103번(또는 11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장재성 빵집·흥학관 복원 절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광주일고 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새겨진 스톤메달라처럼 광주학생운동은 최초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민족 독립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일궈내야겠다는 점에서 이른바 ‘광주 정신’의 발화점(發火點)으로 볼 수 있다. 민주·인권·평화, 나눔·연대·대동의 시민의식이 근대 학생운동에서 싹트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해 지역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 주역들에 대한 인물사적 연구와 스토리텔링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라는 낙인 때문에 독립운동 유공자에도 포함되지 못한 장재성과 소녀회를 주도한 장매성 남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흡인력이 강한 스토리다. 또한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족운동에 헌신하다 스러져 간 수많은 ‘이름 없는 별들’과 흥학관을 지어 청년들의 독립 정신을 고취한 ‘광주 최부자’ 최명구의 이야기도 ‘경주 최부자’에 못지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 역시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휴·폐관 속출 ‘작은 도서관’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심명섭 (재)도서관문화진흥원 광산구 순회 사서

우리 국회는 매년 정기 국회 회기 중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강력한 행정부·사법부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국정감사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석어지만 올해 역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의원들간 욕설과 고성 반발이 난무했다. 자료를 찢고 던져 버리는 등 불성사나온 모습들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민들은 평소 관심을 있거나 접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평생 도서관장이인 필자에게는 문화

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가 눈에 띄었다. 그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광주 41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786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413곳이 개관하고 468곳이 휴·폐관 했다. 환산한다면 55곳이 줄어든 셈이다. 휴·폐관 도서관의 대부분은 사립이다. 이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보다 사립 작은 도서관이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42.6%를 차지했다. 그동안 양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여 정책을 펼쳐 온 결과 질적 향상이 부족했다는 결과다. 도서관에 상주하여 도서를 관리할 상근 운영자가 없는 곳도 40%에 달한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부족한 것이다. 순회 사서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 이 역시 원론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내년도 작은 도서관 예산은 46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에서 관련 정책이 예산과 인력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주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슬로건 하에 마을 안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독서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 활동 등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는 생활 밀착형 복합 문화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량이 많기로 소문난 스웨덴 국민들은 1년에 읽은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85.7%다. 이에 반해 우리는 74.4%로 OECD국가 중 꼴찌다. 스웨덴에서는 어린 시절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학교 과제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하는 교육 환경이다. 더 크게 접근해야 하는 교육적인 차이는 접어두고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더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민 독서열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향후 3년간 복합 문화

공간(작은 도서관 포함) 16개를 세운다고 한다. 작은 도서관이 많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 진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은 갖춰져 가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국한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성과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높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들은 작은 도서관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각시켜 피감 기관을 호통 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모델 개발과 더불어 인력 및 예산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정보와 문화 욕구 충족에 매달라하는 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은 작은 도서관, 머무르고 싶은 작은 도서관이 될 것이다.

社說

지역 일자리 중복 투자 정부가 적극 조정을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광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광주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해 중복 투자와 과잉 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자 이를 모델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에 나섰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뛰어 들었다. 현재 강원, 경남, 광주, 구미, 군산, 울산, 익산, 전남, 충주 등 9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광주와 같은 분야인 자동차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16개 중소 전자 관련 업체들이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에 전기 버스와 초소형 전기차를 연간 3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해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 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지원 사업마저도 수도권 편중이러니

창업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극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소외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의원(광주 서구갑)이 창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 사업 대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고급기술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TIPS 운영사는 광주에 단 한 곳도 없었다. 2018년 예산이 536억 원에 달했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창업팀을 선별해 민간투자자와 정부 R&D를 연계 지원하고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TIPS의 총 45개 운영사 중 75.6%에 이르는 34개사가 수도권에 집

또 구미시가 LG화학과 손잡고 전기차 2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 ‘구미형 일자리’와 2023년까지 4만 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강원형 일자리’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울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3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 역시 초기에는 소형 SUV를 생산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기적으로 생산 인원을 친환경 완성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 지자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특정 산업에 몰리면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분산돼 광주만 애꿎은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됐으며, 광주와 전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에는 운영사가 하나도 없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34개, 충청권 6개, 영남권 4개가 위치한 반면, 호남권에는 전북에 단 1개 운영사뿐이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교육·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3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광주 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3.5%인 122억 원만 투입됐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R&D 지원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창업 지원마저 수도권에 편중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창업 인프라 조성이 국가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균형적인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마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오현제(五賢帝) 시대’라고 한다.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서기 98-180년)다.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제국 쇠퇴사’에서 “정의와 평화가 감물처럼 넘쳐 흘렀던 시기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태평성대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부자 세습이 아닌 양자 상속에 있었다. 오현제 시대를 연 네르바는 아들이 없기도 했지만, 원로원 의원 가운데 덕망 있고 총명한 트리아누스를 양자로 삼아 왕위를 물려줬다. 세 번째 황제인 안토니우스의 아들이 두 명

그의 아들이 최악의 황제가 된 것은 아리니가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늘 자식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 금호그룹이 사실상 계열 분리된 것도 형제 상속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박성용 회장부터 3남인 박삼구 회장까지는 창업주의 유혼에 따라 형제 상속이 지켜졌지만 박삼구 회장 때 부자 상속 움직임을 보이자 4남인 박찬구 회장이 반발하면서 그룹이 분리됐다.

요즘은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한 것도 딸이 대학 논문 의 1저자가 됐다는 비판 때문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딸의 대입 부정입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에선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가 ‘○○찬스’라는 말로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병원의 사무국장인 아들과 조카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것도 모자라 다른 간부와 함께 서로 상대편 아들 면접관으로 들어가 최고 점수를 주는 ‘뽕맛이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찬스도 없는 청춘들의 상실감을 어찌 할까.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기고

‘커뮤니티 케어’와 행복한 노년

어김없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다. 귀소 본능은 인간에게도 생물학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근원적 본성인 것이다.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요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 우리 서구 지역만 해도 노인 인구가 4만여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돌봄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에서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그리고 독립 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다.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구는 지역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 LH주택공사, 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 협회 등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분야의 전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시스템도 운영중이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 중이며 18개 동 주민센터에는 커뮤니티 케어 창구를 설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복합 커뮤니티 케어 운영, 노인 집중 사례 관리 등 30여 개의 선도 사업과 연계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통

합 돌봄 어플 및 스마트폰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다.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병원들이 6000여 명의 노인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면 낙상 예방 집수리, 방문 도우미 플러스, 영양 음식 지원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우리 구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 서구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효율성은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시작이지만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돌봄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



조승환 광주시 서구 복지일자리국장

귀소 본능(歸巢本能)이란 말이 있다. 태어난 곳 또는 생활해 온 곳에서 멀리 떠났다 해도 다시 본래의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의미한다. 귀소성 또는 회귀 본능이라고도 일컫어진다. 끝없는 아주 멀리 날아 갔다가도 귀소 본능을 통해 집으로 되돌아온다. 알에서 깨어난 연어는 며칠 안에 바다로 나가 연안에서 3개월 정도를 지내고, 북태평양으로 건너가 지낸 뒤 몇 년 뒤에는 산란을 위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33	경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 사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